

日 미쯔비시 重工業, 록히드마틴과 F-2 계약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은 11대의 F-2 지원 항공기의 초기 조립 부품 생산 계약을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일본의 지원 전투기의 후방 동체, 날개 앞쪽의 플랩, 6개의 좌측 윙 박스(wing box) 및 다른 부품들을 제작하게 될 것이다.

동사는 이번 사업은 500명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만들게 되며, 모든 작업장에 관리 시스템과 일정한 전자 지원장비 및 F-2에 맞는 기내/지상 장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록히드사의 추산에 따르면 99년 말까지로 예정된 이번 계약의 가치는 수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최초의 F-2는 일본 나고야의 미쯔비시 공장에서 완성될 것이며, 일본 항공자위대는 최소한 130대의 F-2를 조달할 계획이다.

사전 제작된 4대의 원형기들은 이미 200의 비행을 완료한 상태이며 전체 외형상으로는 F-16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F-2는 co-cured 복합소재로 만들어진 더 큰 날개와 일본이 설계한 더 긴 동체를 사용하고 있다.

F-2의 주임무는 해상 방어에 있으며 근해에서의 요격능력도

포함되어 있다.

보잉-크베너 합작 미국 해군 기지 공사 추진

미국의 보잉사와 노르웨이의 크베너사가 합작으로 공사규모가 5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해군의 해상 비행기지 공사를 수주할 전망이다.

유럽최대 조선사인 크베너사의 대변인은 미해군의 요청으로 보잉사와 함께 총길이가 1천5백90미터에 달하는 해상비행기지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해상기지는 전투기 이·착륙과 군인수송임무를 맡게되며 총공사비가 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크베너사 대변인은 이기지는 "C-17 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만명정도의 군인이 상주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사의 대변인은 타당성조사에만 약 1년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착공이 확정되면 크베너사는 플랫폼 건설을, 보잉사는 비행통제 및 전기 시스템 구축공사를 맡을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MiG-29의 기술도입을 고려중이다.

인도네시아 F-16 구매 지연에 따라 MiG-29 고려중

인도네시아 군측은 미국으로부터 9대의 록히드마틴 F-16A/B기를 추가 구매하는데 계속 실패함에 따라 MAPO-MiG MiG-29 Fulcrum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역의 소식통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러시아의 동 전투기와 잠재적 공급자에 대한 초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을 주 무기 공급자로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과거 인권 문제를 들어 미의회내 반대세력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저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F-16 9대의 구매를 즉각적으로 취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들은 최초 파키스탄이 주문했다가 역시 미의회에 의해 수출금지를 당한 것이다.

몇몇 관측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공군의 유일한 양자택일로는 유럽으로부터 새로운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있다. 프랑스는 동남아시아에서 다소 Mirage 2000-5이나 라팔에 대한 판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는 동사의 호크 100/200 고등훈련/경전투기와 맞는 사브 그리펜을 후원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미국이 면허 생산된 그리펜의 볼보/제네럴일렉트릭 F404-400 엔진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도록 할 지 의심스럽다.

QDR 계획, F-22와 F/A-18E/F 구매 대폭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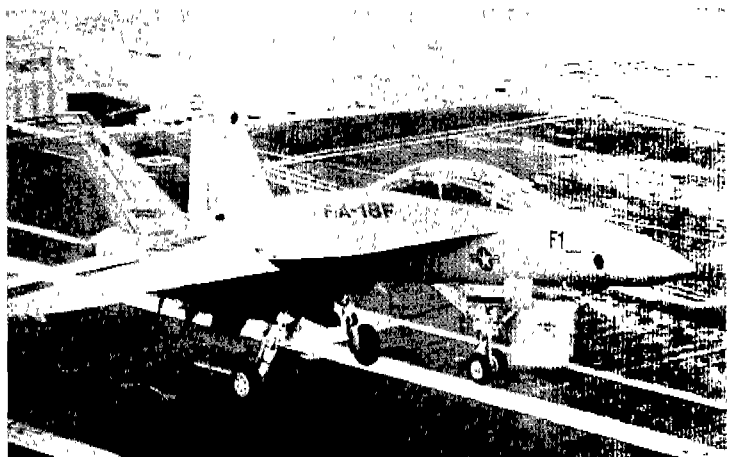
미공군은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가 받아들여질 경우 주요 부대를 잃게되는 유일한 군대가 될 것이다. 공군의 비행단(wing) 하나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며, 이렇게 된다면 제공권 장악을 위한 4개의 비행단이

3개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손실은 3개의 비행단(squadron)와 99대의 록히드마틴 F-22를 지원하기 위한 1,166명의 운영 요원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QDR 계획에 의하면 F-22의 구매는 438대에서 339대로 떨어지며, 비행단의 수는 20에서 19로 감소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해군의 맥도널더글라스 F/A-18E/F 계획도 당초 계획되었던 1,000대에서 785대로 줄어들게 되었다. B-2 폭격기를 더 생산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윌리엄 코헨 국방부 장관은 추가로 연간 150억 달러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 관리에 이러한 감축이 합리적인 작업이며 현대화 계획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F-22와 F/A-18E/F 사업의 경우, 이러한 감축은 주로 동 사업의 막바지

에 진행될 것이므로 생산량이 약간 감소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략 공군의 감축에 있어서도 아직 희망은 있다. F-22와 F/A-18E/F의 개량형은 위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계획의 축소는 JSF(Joint Strike Fighter) 구매량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F-22 개량형 사업은 F-15E/F-117을 운항 거리와 유효 탑재량이 증가된 항공기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될 것이다.

해군은 이러한 값비싼 특수 개량형은 250-300대 정도만 구매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머지는 이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해병대와 공군도 구매하게 될 ASTVL(Advanced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기로 대체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가까운 장래의 전투기 감축에도 불구하고 F-22와 F/A-18E/F의 장거리, 전자전용 파생형의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